

# 공 고

## ●문화재청 공고 제2022-40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2. 29.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3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나신걸 한글편지 (羅臣傑 한글便紙)	2점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2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昌寧 觀龍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존상 17구 발원문 3점	① 불 상: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 ② 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통도사정보박물관)
3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서울 靑龍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예고】

□ 나신걸 한글편지(羅臣傑 한글便紙)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나신걸 한글편지(羅臣傑 한글便紙)
- 소 유 자 : 대전광역시(대전시립박물관)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대전시립박물관
- 수 량 : 2점
- 규 격 : 편지① 46.0cm×32.1cm, 편지② 49.1cm×35.2cm
- 재 질 : 종이
- 판 종 : 필사본
- 조성연대 : 1490년대 추정
- 제 작 자 : 나신걸(羅臣傑, 1461~1524)
- 사 유

‘나신걸 한글편지’는 조선 초기 군관(軍官)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이 아내 신창맹씨(新昌孟氏)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으로, 2011년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에 있던 조선시대 신창맹씨 묘에서 발견되었다.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편지의 내용 중 1470~1498년 동안 쓰인 함경도의 옛 지명인 ‘영안도(永安道)’라는 말이 보이는 점, 나신걸이 함경도에서 군관 생활을 한 시기가 1490년대라는 점을 통해 편지 역시 이 때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신걸은 조상대대로 무관직(武官職)을 역임한 집안 출신으로, 편지를 썼을 당시 그는 함경도에서 하급 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인 신창맹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저고리, 바지 등 의복 28점, 한글편지를 포함해 13점의 유물 등 총 41점에 달한다. 이 중 한글편지는 피장자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편지는 아래 위, 좌우에 걸쳐 빼곡히 채워 썼으며, 내용은 모친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철릭(天翼,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공복公服) 등 필요한 의복을 보내주고, 농사일을 잘 챙기며 소소한 가정사를 살펴봐 달라는 당부가 주를 이룬다.

이 편지가 1490년대에 쓰였음을 감안하면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불과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과 하급관리에게까지 한글이 널리 보급되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조선 시대 한글이 여성 중심의 글이었다고 인식된 것과 달리, 하급 무관 나신걸이 유려하고 막힘없이 쓴 것을 통해 남성들 역시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했음을 보여 준다. 즉 기존에는 관청에서 간행된 문헌으로는 한글이 대중에 어느 정도까지 보급되었는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 이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한글이 조선 백성들에게 깊숙이 일러져 실생활에 널리 쓰인 사실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신걸 한글편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이자 상대방에 대한 호

칭, 높임말 사용 등 15세기 언어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앞으로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과 가정 경영의 실태, 농경문화, 여성들의 생활, 문관 복식, 국어사 연구를 하는데 있어 활발하게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며,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반포의 실상을 알려주는 언어학적 사료로서 학술적·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昌寧 觀龍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현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76호(2015.1.15. 지정)
- 명 칭 :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昌寧 觀龍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① 불 상 :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  
 ② 발원문: 대한불교조계종 관룡사(통도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① 불 상: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관룡사  
 ② 발원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정보박물관
- 수 량 : 존상 17구, 발원문 3점
- 규 격 : 표 참조
- 재 질 : 목조
- 형 식 : 지장보살삼존과 시왕 권속으로 구성된 명부존상
- 조성연대 : 1652년(효종 3)
- 제작자 : 응혜(應惠), 계찬(戒贊), 밀운(密云; 密雲), 인계(印戒), 축한(竺閑), 해기(海機), 사민(思敏), 문형(文洞), 종협(宗洽)
- 사 유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은 조각승 응혜(應惠)를 비롯한 9명의 조각승들이 1652년 3월 완성해 관룡사 명부전에 봉안한 17구의 불상이다. 봉안된 존상은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판관 1구, 귀왕(鬼王) 1구, 금강역사 2구 등이다. 존상 가운데 판관과 귀왕 각 1구, 금강역사 2구는 같은 시기 다른 사찰의 명부전에 조성된 존상들과 비교해 적은 구성이기는 하나, 이는 관룡사 시왕전(十王殿)이 남아 칠성각을 1칸 늘려 명부전으로 삼았다는 상량문의 기록과 관련이 있다. 즉 원래 전각은 시왕전으로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주며, 좁은 전각의 규모에 맞춰 존상의 규모를 지금처럼 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조각승 응혜는 1634년부터 1674년까지 활동사항이 알려져 있는 17세기 중엽경의 대표적인 조각승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수조각승으로 성장하기 전, 청헌(淸憲)이나 승일(勝日) 등 당시 대표적 조각승의 작업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 인물로, 이 명부존상은 그의 두 번째 명부존상 작품이며 가장 왕성하고 완숙한 조각솜씨를 펼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발원문에 기록된 존상과 현존하는 존상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완전성도 갖추고 있다.

관룡사 불상들은 어깨가 좁고 길쭉한 신체에, 넓고 높은 무릎이 특징이며, 별도의 지물(持物) 없이 합장을 한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면관의 자세에 뾰족한 수염과 낮은 코, 한쪽 팔을 뒤로 빼서 기댄 채 수염을 만지는 여유로운 자세의 시왕상, 과장된 투구를 쓴 장군상 등은 응혜 조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처럼 ‘창녕 관룡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조각승 응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봉안된 전각의 변화 및 17세기 명부전 존상의 구성과 독자적 양식의 성립 과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울러 발원문 등 관련 기록을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며, 17세기 중반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을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조각승의 작품으로서 학술연구에도 중요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표> 지정대상 존상 및 발원문 현황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비고
1	지장보살상	1652	나무	상높이 92.5, 무릎폭 69.5 대좌 51.5×95×85	
2	무독귀왕	1652	나무	상높이 132.5, 어깨폭 33.5	
3	도명존자	1652	나무	상높이 122.5, 어깨폭 37	
4	제1 진광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3, 최대폭 46.5	
5	제2 초강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21.5, 최대폭 46	
6	제3 송제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6.5, 최대폭 45.5	
7	제4 오관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4.5, 최대폭 44	
8	제5 염라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3.5, 최대폭 43.5	
9	제6 변성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5, 최대폭 44.5	
10	제7 태산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9, 최대폭 44	
11	제8 평등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15.5, 최대폭 45.5	
12	제9 도시대왕	1652	나무	상높이 123, 최대폭 48.5	
13	제10 오도전륜	1652	나무	상높이 123, 최대폭 48.5	
14	귀왕상(우)	1652	나무	상높이 109, 어깨폭 31.5	
15	판관(좌)	1652	나무	상높이 108.5, 어깨폭 26.5	
16	장군(우)	1652	나무	상높이 129.5, 어깨폭 28.5	
17	장군(좌)	1652	나무	상높이 128, 어깨폭 30.5	
18	도명존자 발원문	1652	종이	크기를 특정할 수 없음(약10×50)	잔편
19	무독귀왕 발원문	1652	종이	30.0×52.0	
20	제8대왕 발원문	1652	종이	30.5×52.0	

□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靑龍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서울 靑龍寺 毘盧遮那佛 三身掛佛圖)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망산길 65, 청룡사
- 수 량 : 1폭
- 규 격 : 전체 517.0×332.0cm, 화면 500.0×314.0cm
- 재 질 : 마본채색(麻本彩色)
- 조성연대 : 족자
- 조성연대 : 1806년(순조 6)
- 제작자 : 민관(旻官), 영탄(永坦), 환감(煥鑑), 보연(普演), 의정(義定)
-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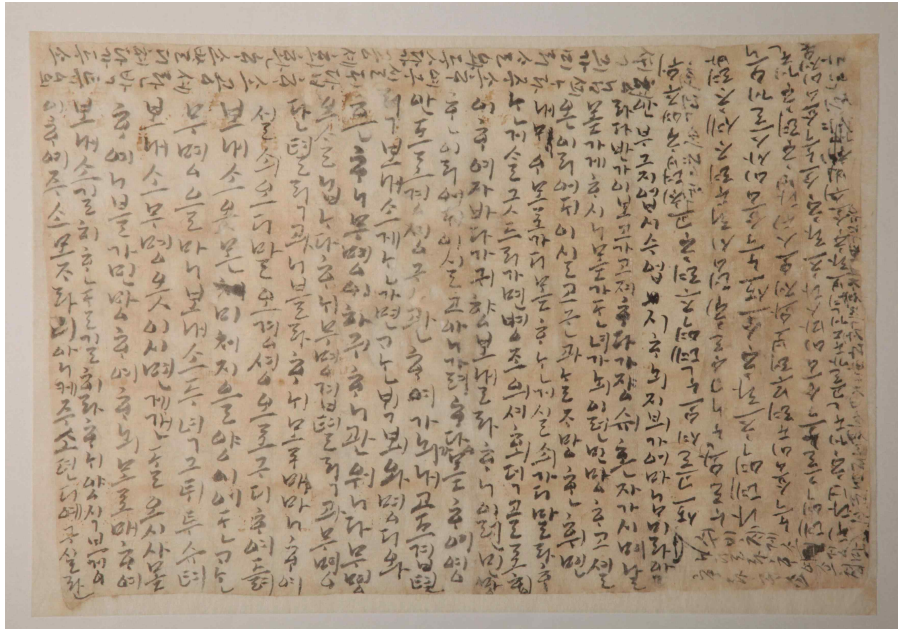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06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장수를 기원하며 원통사(圓通寺)의 상궁최씨(尙宮崔氏)가 발원하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걸쳐 활약한 민관(旻官)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제작한 대형불화이다. 이 괘불도는 18세기 말~19세기 서울 경기지역의 불화 제작을 전담했던 경성화승집단의 일원인 민관의 대표작이자 이 시기에 궁녀가 발원하여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여래의 비로자나불 삼신불을 화면 가득히 배치한 구도와 협시불을 본존불보다 반걸음 정도 앞세워 배치한 표현은 18·19세기 서울·경기지방에서 크게 유행한 도상 중 하나이다. 특히 단독의 괘불도나 팔상도에서 장엄신(莊嚴身)으로 등장하던 석가여래를 삼신불의 화신불(化神佛)에도 도입하고, 화면의 상단에 좌우 원안에 문수·보현동자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도상을 창출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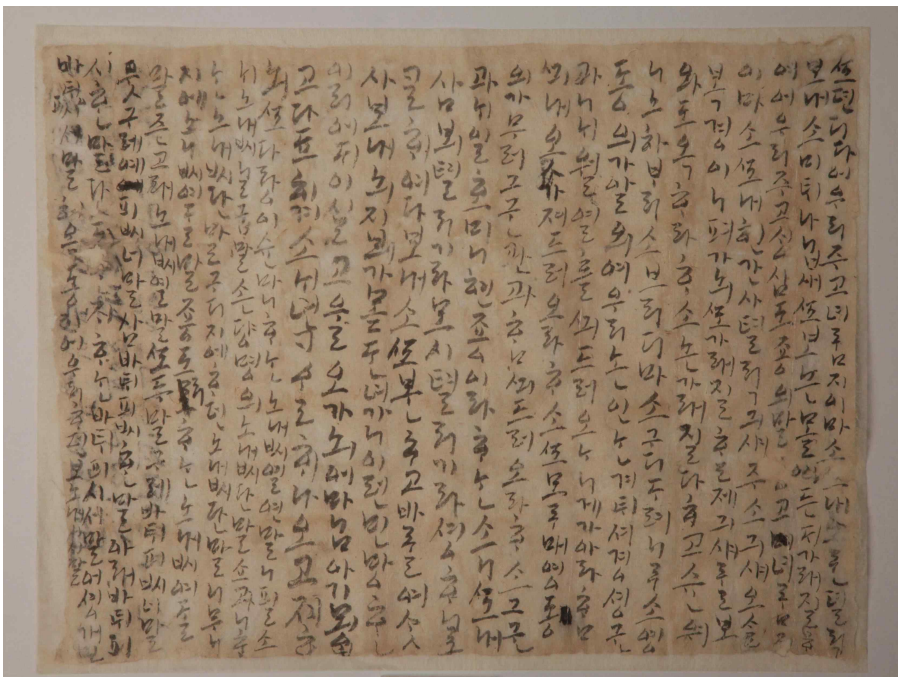
색채나 채색방식에서도 18세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한편 19세기 초 새롭게 대두된 요소도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선묘나 구도 등도 이지러짐 없이 안정적이며 작품성도 이 시기 불화 중에서는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이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9세기 초 서울·경기 지역의 새로운 괘불 형식과 양식이 반영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여래형 비로자나불과 좌우에 보관(寶冠)을 쓴 보살형 노사불과 석가불로 구성된 유일한 삼신불 괘불이라는 점, 18세기 양식에서 19세기 양식으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있는 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예술적·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정 예고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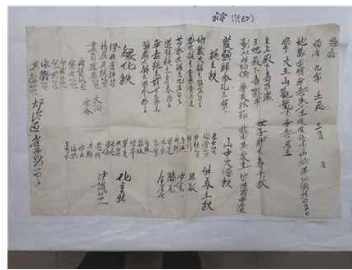
<나신걸 한글편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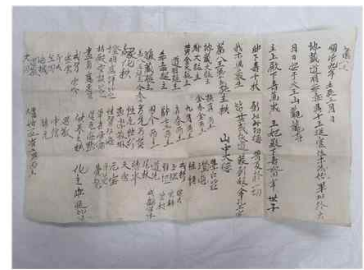
<나신걸 한글편지②>



도명존자 발원문편



무독귀왕 발원문



제8대왕 발원문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